

발행처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로94번길 11, 3층

<https://ddcenter.kr>

TEL. 042-623-1500 FAX. 042-623-0400

E-MAIL. ddcen2019@daum.net

인쇄 및 제작

마을청년이슈연구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북로 32번길 7-19, 지하 1층

TEL. 010-3909-4619 E-MAIL. myssue@naver.com



목차

#1 거리마다 꽃피는 행복한 우리 마을

대화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화마을 花이팅!! 골목정원	6
대덕구 자유총연맹 여성회 - 마을 꽃밭 만들기	8
꽃뜰리에 -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꾸미는 마을 손바닥 정원	10

#2 우리 동네 숨어 있는 문화 찾기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 - 남월마을 이야기 책 만들기	14
꿈사랑 - 캘리그래피로 이웃 만나기	16
대덕 팻방 - 미디어팀 마을공동체 만들기	18
석봉 Good Thing 알리자 - 내손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문화 전시회	20
석봉동행복지킴이 - 마을영상 만들기 교육 및 실습	22
미리내 모꼬지 - 공동체 학습, 탐방	24
마니피캣 - 쿼트 재능나눔	26
청년문고 - 독서, 마을탐방	27
미래문화예술협동조합 - 금관악기 교육 재능나눔	29
꿈나무 - (재능나눔)마을 주제 작품전시회	31
대덕구 체육음악회 - 자연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음악회	33
회덕동 주민자치회 - 담장과 창문 너머로 골목음악회	35
어울림 통기타 - 기타학습 재능 나눔, 소외계층에 음악공연을 통한 봉사활동	37
독보적 라온 -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9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도 만들기	41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 - 나눔 큰잔치 석봉마당 마실, 전통시장 활성화	43

#3 나누는 행복, 참여로 하나되는 우리 동네

정신 건강 행복 공동체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46
그림책아 놀자! - 그림책을 활용한 지역기관 및 단체 봉사활동	48
내가 결정한다 - 성인 발달장애인 일상 생활훈련	50
THE 자람 - 집단상담으로 친밀해지기	52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54
모해 - 중증장애인 이동권 조사	56
복 짓는 사람들 - 글꽃향 꽃그림 재능 나눔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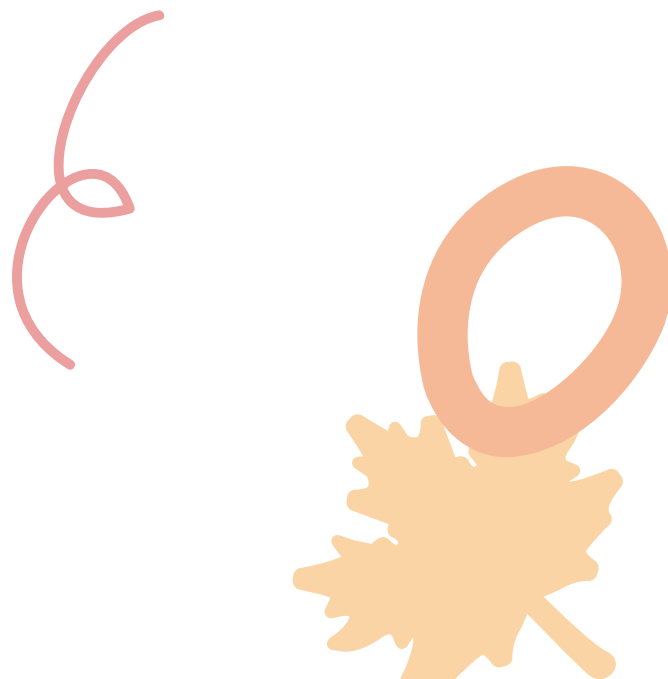


#4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사는 마을

해피라이프 - 독거노인 고독감 해소를 위한 웰라이프 교육	61
동심회 - 세대와 다문화가 함께하는 놀이	63
니나노 - 어르신 문화체험	65
대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 대전청춘실버	67
이멤리멤 - 대덕어린이 미래 놀이연구소	69
같이의 가치 - 공동육아 with & joy	71
이(e-)편한세상 대덕법동 입주자대표회의 - 놀이 배워서 마을에서 놀기	73
노리다락 - 꼬마작가 프로젝트	75
소골 청년회 - 크게 clean care 소골 : 마을 청소 및 돌봄	77
민들레흙씨다오소 - 대덕구 취미 걷기 및 문화활동 즐거운 노후 만들기	79

#5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새여울 단기보호센터 - 커피박 리사이클링	82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이 만드는 미호넷제로 장터	84
마을청년이슈연구소 - 기후위기 대응 주민실천단	86
비래동 새마을문고 - 환경 관련 수업, 견학, 발전하는 환경 거점 도서관	88
(사)대전희망유스나래 - 몸과 마음, 환경이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90
야우킴 - 법1동 환경지킴이	92



#1 거리마다 꽃 피는 행복한 우리 마을

대화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화마을 花이팅!! 골목정원
대덕구 자유총연맹 여성회
마을 꽃밭 만들기
꽃밭리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꾸미는 마을 손바닥 정원



대화동 도시 재생주민협의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일하는 모임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화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황선영입니다.

저희는 노후된 마을의 변화를 꿈꾸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대화동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2019년 만들어진 이후 35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도시재생 대학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1.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장터 '대화 어울림 문화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생 대학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이 중 도시재생 대학은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대화동은 1970년대 산업단지가 있었던 지역으로써, 많은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벌집 형태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사람도, 마을도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덕구 안에서 가장 폐가가 많은 곳이 대화동이기도 합니다.

대화동 안에 재개발 구역이 2군데 있지만, 가운데 지역은 사업 가치가 떨어져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재생 구역으로 설정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조합 결성과 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 자생적으로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단체에 관하여 행정과 역량 관리와 같은 기초 교육을 끝내고, 수료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Q. 대화마을 花이팅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의 역량, 프로그램 강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작년 9월,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후되고 녹색식물이 적은 대화동의 변화를 위해 ‘대화마을 花이팅!! 골목정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었던 대화동의 골목이 초록빛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Q. 마을장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70에서 80년의 대화동 명동길은 공단지역이라서 출퇴근 시간에는 어깨와 어깨를 치고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노후화되고 유동 인구도 줄어들어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적막함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들은 외출을 꺼리시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대화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2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 버린 대화동을 보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이터를 만들어볼까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공방이었습니다.

대화동은 2/3이 공단지역이고, 1/3 공간이 거주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공방이 7개나 됩니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마을장터’를 운영해 보자”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울림 장터는 2022년에는 2번 진행했고, 매달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울림 장터에서는 이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서 다문화 푸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동 안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보석들을 발굴해서 무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들부터 노인 세대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장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공간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어르신들

의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터에도 팔고, 남은 먹거리는 공유냉장고를 활용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면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더 3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주민과 교육 관련 협동조합을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공동체원들의 연령이 높은 편이라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없어서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유 인력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민이 주인인 곳입니다. 우리는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Q. 알리고 싶어요!

- 나무와 대화

폐목재를 이용한 작품 활동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레인보우 예술단

다문화 아동들로 구성된 합창 및 중창 공연단

- 다문화 예술단

베트남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춤 공연단

섭외 및 문의

042-624-1310 / seomna@hanmail.net



대덕구 자유총연맹 여성회

자유총연맹 여성회와
함께 골목정원 만들기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자유총연맹 여성회 회장 장경화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한 마디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쟁을 위해 일요일마다 대전역에 모여서 쫓겨대회와 거리행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회가 존재하긴 했으나 활발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2개의 각 동마다 회장들이 선출되어 조직을 꾸리고 총 15명의 공동체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데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골목 정원에 대해 알고 실천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대덕구에 있는 12개 동을 조금씩 다 해볼까 했지만, 예산과 시간 문제로 선착순으로 4개 동을 선정하여 골목 정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정동, 석봉동, 덕암동, 회덕동 중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3개의 마을 정원이 조성되었고, 나머지 한 개도 곧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 정원 가꾸기 교육사업에 공동체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을 정원을 하면 단순한 꽃밭을 생각하는데, 단순히 식물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배수시설부터, 포인트까지 배웠습니다. 배움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을 정원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골목 정원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활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밭을 일구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골목 정원 사업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골목 정원을 조성했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다른 공동체보다는 사업 시기가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골목 정원에 대한 공부까지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왕 하는 것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Q. 마을 정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주민들도 정원 조성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다짐을 확실히 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관리자를 선정한 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장이 깨끗한 꽃 정원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해합니다.

마을 정원에서 티타임을 가질까 생각할 정도로, 마을 정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좋아하십니다. 특히 덕암동 동장님은 마을 공터가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공동체가 해결했다며, 코가 밭에 달도록 절하며 감사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Q. 각 마을 정원의 컨셉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호 오정동 정원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인형을 가지고 꾸며보았습니다. 2호 석봉동 정원은 학교와 학교 사이에 조성했는데, 큰 나무들 작은 꽃들의 조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3호 회덕동 정원은 빌라와 빌라 사이에 조성했습니다. 꽃을 울타리 형식으로 지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형상화했습니다. 앞으로 지을 4호는 산책로로 조성해 보려 합니다. 큰 나무로 지저분한 공간을 가리고 아름다운 미관을 형성하려 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이버 방송국을 만들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조성한 골목 정원에 대해 홍보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외로운 이주 여성들과 음식을 나누고 예술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꽃뜰리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꾸미는 마을 손바닥 정원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뜰리에 대표 송왕도입니다.

‘아뜰리에’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예술가의 작업공간 같은 것을 ‘아뜰리에’라고 합니다.

저희 ‘꽃뜰리에’는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 꽃과 나무 같은 걸로 저희 마을이 작업 공간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마을 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정원을 가꾸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예쁘게 꾸며 놓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의 귀퉁이 곳곳을 잘 찾아보고, 그 안에서 정원을 만들어 꽃과 식물을 통해서 저희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꽃뜰리에 마을 정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안녕하세요. 꽃뜰리에 활동가 손갑철입니다. 제가 활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며 10년 정도 있다 보니 아는 얼굴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일도 해 보고 싶고 그러던 차에 1년 전쯤 ‘마을여행가’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조그만 이슈도 아이디어화하여 여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서 우리 대덕구, 특히 중리동을 알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송왕도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에 대한 애정,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점, 기후환경, 꽃과 식물 등에 대한 관심사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사를 좀 더 크게 보아,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 정원 가꾸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민 끝에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마음에 마음 맞는 회원들을 더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체 지원센터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마을 공동체 ‘꽃뜰리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를 운영하며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연령들이 있고, 각자 생활들이 있어 중간에 소통 문제들이 있었지만, 몇 개월 함께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되어서 지금은 서로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작할 때는 소극적이기도 했었는데 공동체 지원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 어려움보다 힘내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를 운영하며 에피소드 있나요?

마을에 작게나마 조그마한 정원들이 생기니 주변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 앞에도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반응에 상가 번영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더니, 너무나도 크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 상황이 무척 행복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작은 정원을 꾸며 봤을 뿐인데 서로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주민들이 오고 가며 봐 주고, 또 같이 하겠다는 동참 의사도 밝혀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요즘은, 정말 공동체 모두가 신나서 열심히 더 일을 벌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아뜰리에’가 기획하여 공동체 교육을 진행하셨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저희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고 싶었는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좋은 강사님을 소개받았고, 시민정원 양성가 과정을 공동체 끼리 교육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안에 이미 정원에 대한 박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강사님의 교육도 받았지만, 구성원끼리 서로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종수목원으로 견학도 다녀오고, 식물에 대한 교육도 더 받으며 식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배움을 통해 마을 정원을 꾸밀 때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Q. ‘아뜰리에’가 참여한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마을 정원 양성이 과정 교육을 진행한 것 외에도 한마음 축제에서 식물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장으로 집에서 사용 안 하는 폐 화분을 가져오면 식재하고 예쁘게 꾸며진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드렸더니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식물이 모자라, 나눌 수 있는 식물이었기에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종리동 행복길에 정원을 만들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Q. 공동체에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공동체에게 마법을 부리고 싶은 게 있다면, 회계 부분입니다. 저희 활동가 외에도 센터 직원분들께서도 회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회계 서류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서류에 대한 어려움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법을 부려 서류, 회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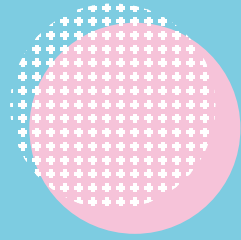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이미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센터에 와서 내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려 주시며 질 좋은 교육을 해 주셔서 저도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골 카페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단 직원분들이 친절 하십니다. 그리고 카공(카페 공부) 하듯이 센터에 가서 컴퓨터,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센터는 저희의 단골 카페입니다.

#2 우리 동네 숨어 있는 문화 찾기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
남월마을 이야기 책 만들기

꿈사랑

캘리그래피로 이웃 만나기

대덕 팻빵

미디어팀 마을공동체 만들기

석봉 Good Thing 알리자

내손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문화 전시회

석봉동행복지킴이

마을영상 만들기 교육 및 실습

미리내 모꼬지

공동체 학습, 탐방

마니피캣

퀼트 재능나눔

청년문고

독서, 마을탐방

미래문화예술협동조합

금관악기 교육 재능나눔

꿈나무

(재능나눔)마을 주제 작품전시회 ○ ○ ○ ○

대덕구 체육음악회 ○ ○ ○ ○

자연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음악회 ○ ○ ○ ○

회덕동 주민자치회 ○ ○ ○ ○

담장과 창문 너머로 골목음악회

어울림 통기타

기타학습 재능 나눔, 소외계층에

음악공연을 통한 봉사활동

독보적 라온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도 만들기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

나눔 큰잔치 석봉마당 마실, 전통시장

활성화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다



Q.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은 무슨 뜻인가요?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 공동체 대표 이은자입니다. 저는 와동 남월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이자 마을활동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삼태기 마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월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농산물을 담아 옮길 때 사용하던 옛 농기구 삼태기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삼태기 속에 마을 어르신들의 삶에 이야기를 담고, 후손들에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로 공동체 이름을 정했습니다.

Q. 공동체 활동 계기를 말해주세요

사업 참여를 결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다가,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동은 35가구 중 80%가 70, 80세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중한 자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마을 책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 목표는 ‘마을 유래 소개’와 ‘남월마을과 연계되는 주민의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Q. 마을 책 만들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글을 쓰고 책을 써 본 경험이 부족해서, 월간 토마토 이용원 대표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중심으로 격주마다 금요일 오후 5-7시에 모여서 글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책 발간은 11월 안에 완료되어, 주민들과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글쓰기가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5명의 공동체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기회에 참여하게 하여, 3년 안에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

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소개하고 싶은 남월마을의 이야기는?

1. '와동'과 '남월'이라는 이름의 유래

와동은 기와를 굽는 마을, 남월이라는 뜻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2. 깨끗한 자연환경과 마을 우물

남월마을은 공기가 맑고, 밤에는 별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마을입니다.

마을 우물에는 1급수에서만 사는 가재와 맹꽂이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 우물은 동네 주민들이 옛날부터 대대로 사용하던 물이며, 무지개가 출발하는 우물이기에 피부질환이 있을 때 우물의 물로 세수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3.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혜

어르신들과 대화해 보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하고 계신 81세 어르신에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용기를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통해 나눔의 정을 배웁니다. 옛날 음식을 잘 만드셔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함께 나눠 먹기도 합니다.

Q. 어떤 남월마을을 만들고 싶나요?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삶의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 풀어 갑니다. 금전이 오고 가지 않는 건전한 신체활동 '웃놀이'를 하며 따스한 정이 담겨 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한 관광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재능을 발굴하여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둘러 볼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마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Q. 이것만은 꼭 홍보하고 싶어요!

책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 연락 후 마을에 놀러 오신다면 농산물, 식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은자 010. 2523. 8357



꿈사랑

캘리그래피로
이웃 만나기



Q. 공동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캘리그래피 업서에 담긴 글과 그림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이웃과 단절된 사람들이 많은데,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공동체원이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배운 그림과 글을 쓰면서 많은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밥을 먹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분 중, 직업을 갖게 된 뒤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오신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뒤 완전히 꿈을 잊었지만, 자원봉사로 밥 두 끼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꿈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는 것이 힘들다보니 잠시 잊은 것뿐이지! 앞으로는 꿈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찾아드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급식 봉사 외에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활동은 지속적이지 못하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편지를 쓰는 날입니다.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캘리그래피를 통해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지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생각납니다.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눈빛이 불안한 친구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할까봐 어머니가 두려워 집을 비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와는 7개월 정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공동체와 함께 소통을 하며 캘리그래피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 우울증 약도 끊고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청년이 안정되다 보니, 어머니 역시 직업을 가지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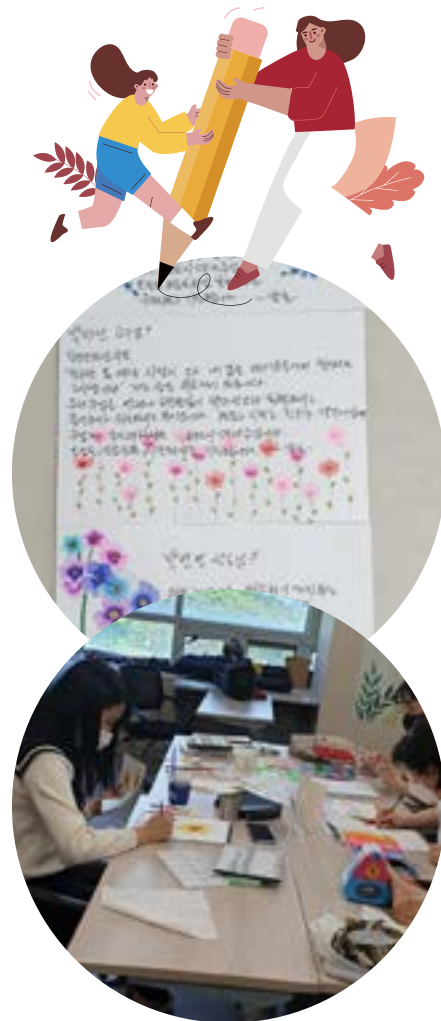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상처 입고 좌절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 분들에게 나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다는 것, 하루하루 견디며 극복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화요일마다 만나서 편지 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5번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15회차가 지나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공동체원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모이는 시간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정해진 예산 안에서 봉사가 필요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꿈을 잃은 분들의 꿈들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대덕팟빵

소심해도
방송할 수 있어요!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덕팟빵입니다.

팟캐스트에서 대덕구 talktalk!에서 '힐링할랭'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는 팀입니다.

대덕구에서 팟캐스트를 운영할 일반인을 모집했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팀을 꾸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년 6개월정도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Q.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필수 매체로 유튜브가 떠오르고, 유튜브 방송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엔 얼굴 공개와 영상 매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영상 매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덕구 신탄진 도서관 문화콘텐츠팀을 통해 교육을 듣고 팟캐스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운영하다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물, 음식, 여행과 같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있는 콘텐츠로 '힐링할랭'이라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이상씩은 각 콘텐츠를 돌아가면서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더라도 음성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단체 활동이라면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만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공동체 활동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쓰는 것도, 녹음을 하고 편집

을 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기에 어려웠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뿌듯하고 재미있습니다. 현재 '동춘동 꿈이룸 작은 도서관'에 녹음실이 있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가 고장났을 때 녹음을 진행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Q. 어렵지만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공동체 활동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대덕구에 거주한지 20년째이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와 공동체 소식들을 알고 참여할 수 있어 좋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청취자분이 듣고 공감하고 느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책은 아니지만 업로드된 콘텐츠를 볼 때마다 나의 애정과 노력이 실린 작품이 한 해 한 해 쌓여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처럼 콘텐츠를 통해 나의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대덕팟빵 모임장님을 꼽고 싶습니다. 공동체원들이 편집과 녹음 면에서 서툰 부분이 많은데, 모임장님의 도움으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장님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해 알게 되어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Q. 2022년 BEST 활동이 있다면?

동춘당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참여자들 대상으로 녹음과 편집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처음 듣는 청취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회차가 있다면?

선운사 여행 콘텐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 하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고민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운사 여행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Q. '대덕팟빵'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1. 검색창에서 팟빵을 검색한다.
(<https://www.podbbang.com>)
2. 팟빵 검색창에서 대덕톡톡톡을 검색한다.
3. 대덕 톡톡톡 채널에서 '힐링할랭' 콘텐츠를 클릭한다.

올 해 목표는 구독자를 100명 이상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모집분야: 작가 0명 / 편집자 0명 / 콘텐츠 기획 0명
일기처럼 자신의 삶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활동입니다.

배우면서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barry125@naver.com



석봉 Good Thing 알리자

석봉동의 좋은 일을
널리 알리자



Q. 공동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봉굿씽알리자의 곽동신입니다.

저는 석봉동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알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봉굿씽알리자는 석봉동의 좋은 것을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석봉동은 근 10년 동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주민들과 이주민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문화활동이었고, 지역 내의 문화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알아가는 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과 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체에 소속된 분들과 모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화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전시회라는 미션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니즈에 맞는 전시회 기획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과 관련된 교육과정도 추진하고 10월 중 우리동네 문화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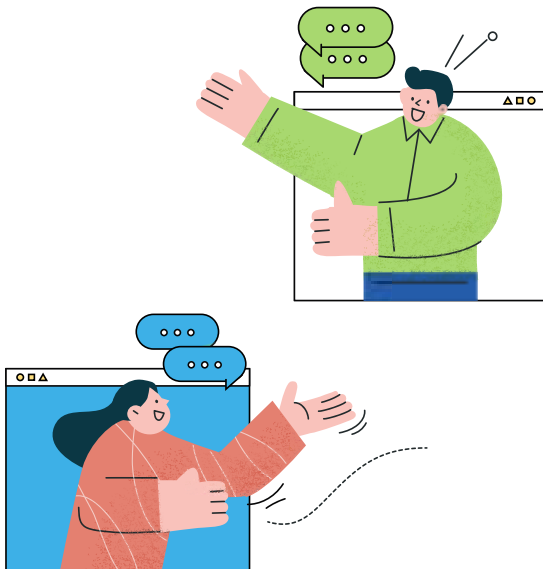
석봉동의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흔적을 담은 다양한 전시물이 공유가 된다면 마을에 좋은 문화가 정착되고, 가까워진 이웃들이 생길리라 기대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마을이 작은 규모다 보니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해도, 규모가 작거나, 교육생 모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Q. 홍보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문화는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에서 생성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신의 추억들이 어우러진 우리 동네 문화전시회가 많은 분들의 참여로 풍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석봉동 행복지킴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봉동에서 행복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박천영입니다.

저는 석봉동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석봉동 주민자치회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석봉동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봉동 관내에 있으며, 대전시에 서 유일하게 있는 행복지킴이입니다.

‘석봉동행복지킴이’는 뜻 그대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찾듯 석봉동행복지킴이도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신탄진은 대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석봉동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석봉동을 비롯한 신탄진권역은 대전시 북단에 위치하여, 문화적, 시설적,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탄진 권역(석봉동을 비롯한 신탄진동, 덕암동 및 목상동으로 이루어진 행정동)의 마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15명의 주민들이 모이게 되었고, 2016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첫째로는 석봉동에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강변에 핑크물리로 화훼단지를 만들어 매년 핑크물리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신탄진과 관련된 옛사진 발굴 및 전시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핑크물리 축제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핑크물리단지를 아시나요? 원래는 버려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을 정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중부권에 핑크물리 명소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정비하여 핑크물리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부권에서 가장 넓은 핑크물리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을 가지고 석봉동 핑크물리 1회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핑크물리 축제를 위해 석봉동 단체가 석봉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석봉동 행복지킴이가 기획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연속 3회로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주민자치회 펼쳐자 분과로 이양되었습니다.

핑크물리 식재 후 첫 번째 축제를 준비하면서 핑크물리 단지에서 우연히 모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에서, 딸은 서울에서 서로 무궁화로를 타고 신탄진역에서 만나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부듯했습니다. 더군다나 2주 전에 제주도에서 핑크물리를 보았는데 이곳이 더 아름답다는 말에 더 열심히 “핑크물리를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핑크물리를 관리하며, 지역사회를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핑크물리는 유해식물 2종으로 아직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핑크물리를 유해식물 1종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모스 역시 70년 전에 우리나라 들녘에 뿌려 졌던 외래종입니다. 지금은 토착화된 외래종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핑크물리도 코스모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핑크물리는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핑크물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크물리가 죽지 않도록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Q. 신탄진 옛사진 발굴 전시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신탄진에 관련된 옛사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제 4회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안다면 앞으로의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탄진의 역사와 지역 이야기를 발굴해 발표하였고, 사진 속에서 교육적인 자료들도 많이 찾아 주민들로부터 많

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은 신탄진 초등학교와의 협업입니다. 아이들에게 신탄진 역사, 초등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다양한 사진을 묶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자료로 강의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탄진 마을의 역사를 듣고 내가 사는 지역에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Q. 공동체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1.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하기
2.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하기
3. 신탄진을 주제로 한 다규 사진 및 영상물 제작 및 기록하기
4. 신탄진 관련 옛사진 발굴 및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하기
5. 지킴이 구성원들이 마을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긍심 고취시키기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회원들의 반 이상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서로를 알기가 쉽지 않지만 석봉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상담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Q. 공동체에 참여 하고 싶다면?

월 1회 정기모임에 참여 가능한 석봉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킴이의 삶이 주민의 삶이다!
내가 행복해야 주민도 행복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내 모꼬지

선하고 아름다운
엄마들의 모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리내 모꼬지에서 일저르기 대장을 맡고 있는 최은주입니다.

화정초등학교 학부모 멤버들로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명의 공동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리내는 은하수, 모꼬지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은하수처럼 좋은 일이 퍼져야 한다는 의미로, 엄마들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간단히 미모(아름다운 엄마들의 모임)로 부르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는 독서와 마을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타 공동체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된 주민들간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엄마들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헌 그림책을 팝업북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으로서 그동안 숨어있던 엄마들의 재능꽃이 활짝 피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Q. 그림책 업사이클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 공동체 활동을 결심했을 때는 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그림책이 5만권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은 코팅이 되어 있기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재능기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버리는 책을 뜯어서 터널북 팝업북과 북트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내 모꼬지의 그림책 업사이클링이 시작되었습니다.

Q. 그림책 업사이클링, 현장 반응이 궁금해요

미리내 모꼬지는 북아트를 배워서, 어린이집에서 부모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그림책 업사이클링 북아트 강의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게 봐주십니다.

Q. 헌 그림책은 어떻게 모으시나요?

헌 그림책을 모으는 광고를 내고, 헌그림책을 가져오면 텀블러 가방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저희 공동체를 시작으로 오정동에 많은 공동체가 생기길 바랍니다.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미래에 모꼬지가 대덕구 공동체 모범사례로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벤트 협찬 및 광고

저희 공동체가 9월 3일 리딩리딩 축제에 참여합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도 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해주세요^^

- 헌그림책 업사이클링
- 북트리 만들기



마니피캣

주부들의 소소한
재능 나눔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니피캣의 단체장 장은영입니다. 평소 대덕구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 대덕구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함양을 의미하는 뜻과 대덕구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아서, 마니피캣, 즉 “마리아의 노래”를 단체명으로 삼았습니다. 마니피캣은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되었지만 모두 대덕구에 거주한 지 20년 이상이 된 주민들로서, 대덕구에 많은 애정이 있으며 대덕구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뭉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주부들로 구성된 모임이기에, 주부들의 강점인 바느질 중에 퀼트로 만든 작품으로 다양한 기관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알리고 싶은 활동으로는 신규회원의 영입으로 재능 나눔을 실천했고, 나눔 재능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작품을 만들어 아나바다 장터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주부 공동체를 통해, 함께 바느질을 하면서 친분 활동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을 공동체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공유를 하고 카네마스트, 카드뉴스 등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회원들의 작품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을 나눔으로써 성취감과 대덕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청년문고

2030 대덕구 청년들의
독서모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2030 청년들의 독서모임인 청년문고의 전수진입니다.

청년들의 독서모임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청년과 문고라는 직관적인 단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인구도, 청년 비중도 적은 대덕구에서 책을 매개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독서모임을 매개로 한 대덕구 청년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6명이 모였습니다. 5~7월에 걸쳐 월든이라는 책을 마쳤고,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덕구에 있는 카페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서점에서 책을 사고, 대덕구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덕구 카페에서 독서모임을 진행하며, 숨어있던 대덕구의 명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책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읽어옵니다. 모임 때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편하게 생각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청년 마을 선진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청년마을지도’에 있는 마을 중 공주와 서천과 같은 후보지 중 택해 1박 2일 선진지 탐방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Q. 공동체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요?

청년문고를 통해 언제든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처음에 ‘모이자’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3인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 인원은 2명뿐이라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원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예보연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청년 중 독서모임을 희망하는 분이 있는데 함께 해볼 마음이 없냐고 말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독서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Q. 공동체를 홍보하고 싶은게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함께 독서와 소통하고 싶은 2030 대덕구 청년들은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 ddg_2030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당탕탕’입니다.
청년들이 하는 모임이다 보니 전문적이지 않고, 매끄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서로 우당탕탕거리면서 부딪히며,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소통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문화예술 협동조합

주민들과 함께 하는
'좋은 마을 관악단'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문화예술 협동조합 권용진 대표입니다. 저희 미래문화예술은 클래식음악, 실용음악, 미술, 현대무용 등 예술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전문예술인 협동조합입니다. 2년전 처음 5명에서 시작하게 된 저희 공동체는 클래식 음악 10명, 실용음악 10명, 현대무용 15명, 미술 작가 2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아 '미래문화예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의 첫 사업은 대덕구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인 '우리 동네 아이 돌봄'이었습니다. 4개의 아동 관련 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ost를 연주하고, 금관악기 소개와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문화원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찾아가 콘서트를 하는 사업이었으며, 대덕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대덕구 꽃씨 폭탄 축제에 초대 받아 공연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 '해보자 사업'으로 '좋은 마을 관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주민들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금관악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리동 아이비 실용음악학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14~15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매우 신선해 하십니다. 학원을 등록해서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금관악기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관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미래문화예술협동조합은 대전

에서 금관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인 유일한 단체입니다. 금관악기는 크게 트럼펫, 트럼본, 호른, 뉴포럼, 튜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에서는 호른 빼고 나머지 4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강사님들이 함께 교육해주고 계십니다.

참여자들은 맨 처음에는 리코더 불 듯 불면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극복해가면서 소리를 내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 악기가 없더라도 렌탈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금관악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음에는 주니어, 시니어, 합반 규모로도 키우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술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을 깨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악기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의 사례를 봐도 1인 1악기를 필수로 배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공부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사업의 심사 때에도 “몇 개월 배운다고 해서 주민들이 금관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금관악기에 대한 오해이고 편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관악기를 활용한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을 만큼, 금관악기는 연주하고, 다가가기에 충분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는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예술의 행위는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만 하는 거라는 편견, 전문예술인들은 우리 동네나 마을에서 공연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나 편견을 깰 수 있는 시민들과 전문 예술인들이 소통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걷지 않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다른 컨셉의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환경문제와 결합해서 페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금관악기를 만들고, 공급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Q. 홍보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1. 좋은 마을 관악단을 추가 모집합니다.

12월에 성과 연주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원: 선착순 6명

-언제: 매주 토요일 10시-12시

-장소: 종리동 아이비 실용음악학원

-연락처: 010-6693-8872

2. 미래문화예술의소속아티스트 반브라스가 공연을 합니다.

-언제: 11월 24일 목요일

-어디서: 대전 예술의 전당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공동체에게는 티켓을 50%을 할인해 드립니다!



꿈나무

아이들의 꿈을
심는 사람들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꿈나무’는 항상 나무처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체험활동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하고 싶은 5명의 선생님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각자가 서양화, 섬유공예, 토탈공예, 판화, 가족공예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이와 엄마와 함께 꿈을 키우는 시간_중리동 마을 작가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리동에 관해서 5가지 프로그램으로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나만의 상상의 집 그리기, 멋진 티셔츠 염색 체험, 파고 찢고 그리는 우리 동네, 무지개 연필 집, 나무로 만드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0명을 정원으로 모집했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현재 17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3남매가 3년 내내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크듯, 작품 실력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년 프로그램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체험활동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체험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끼리 상호 작용하며 사회생활을 배우고,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라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Q. 참여자 중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자폐가 있는 학생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는 통제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 봐 염려해 프로그램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아이일수록 오감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첫 시간에 참여했을 때에는 산만하고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인펜 촉을 뭉개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3회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달라진 아이의 목소리에 어머니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걱정하며 집에 두지 않고, 아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Q. 공동체 활동 중 어려운 점이 있나요?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다 참여시켜주고 싶은데, 재료비의 한계로 인해 인원들을 다 받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업이 있다 보니, 서로 회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개인 공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성과물에 관하여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존감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무력무력 자랄 수 있는 꿈나무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쌓이면 내실 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중리동 마을: 어린이 전시회〉

장소: 중리동 주민센터 / 2층

일시: 2022년 10월 4일~7일 / 오후12시~오후6시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중리동 마을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대덕구 체육음악회

대덕구민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약 15년차 활동중인 대덕구 체육음악회입니다.

대덕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15명의 가수, 국악인,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다면 앞장서서 재능 나눔을 하고, 복지관 등을 다니며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12개 동의 노래교실을 운영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중해 가수님과 함께하는 1호 노래교실을 오픈했습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노래교실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악제를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1년에 한 번씩 노래교실 가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대덕구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은 장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지역 안에서 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생각보다 노래자랑대회에 진심인 대덕구민들이 많이 있어서, 대덕구민들의 노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예선을 통해 12명이 본선에 올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150명이 넘는 대덕구민들이 관람객으로 참여 주셨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노래자랑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에서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노래 대항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겠냐는 제안을 받아 기획 중입니다. 8월 초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10월 초로 연기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며, 대덕구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Q. 많은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동체에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장동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넘쳐납니다. 개인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거나, 시니어들을 활용해 분리수거팀을 꾸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은?

재능기부로 노래를 해드립니다.
행사가 있을 때 협조를 구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장 연락처 010-9915-8798



회덕동 주민자치회

담장과 창문 너머로
퍼지는 음악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덕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분과가 모여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1명의 분과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버스킹 공연입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버스킹은 많은데 주택 안에서 하는 버스킹은 없다,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회덕동에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담장과 창문 너머’로 음악이 들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덕동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을 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진 마을의 예술인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Q. 이번에 공연한 버스킹 팀들을 소개해 주세요

1. 초등학교생들의 칼림바 연주
2. 경기 민요
3. 무형문화제 전수자의 태평무
4. 회덕동 가수, 지중해
5. 시 낭송
6. 주민들의 노래 공연

세대를 아우르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팀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스킹이길 바라며 시작했지만, 2시간 30분 동안 축제 분위기가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람해 주셨습니다.

Q.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장소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공연을 진행하려 하는데, 주택가에서 진행하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 상가에서 진행하면 상인분들에게 폐를 끼

칠 것 같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덕중학교 교문을 무대로 하고, 언덕에서 관객분들이 관람한다면 괜찮은 무대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협조해주시고, 근처 교회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무료로 음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주민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Q.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알려주세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 공연 일정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회덕동 특성상 동네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기에, 다음에는 자기 동네 근처에서 공연을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부분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동네마다 언제든지 쉽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숨겨진 예술인들이 남들 앞에 서서 자신의 끼를 펼치고 실력을 키우는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1회 공연에 출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을 뵙고 싶습니다. 1회 공연은 와동에서 했기에, 와동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공연을 통해 커피를 기부해주시는 등, 많은 소상공인들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Q.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

퇴근 이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동네이기에, 모든 것이 동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방문하고, 더 발전하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동체는 사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시대부터 혼자서는 공룡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협력했기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는 공동체로부터 옵니다.

Q. 공동체 활동 중 홍보하고 싶거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연자들과 공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찬 부탁드립니다. 공연자 중 섭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경화 문화예술분과 010-4419-7270



어울림 통기타

노래와 기타로,
인생을 즐겁게



Q. 공동체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울림 통기타 회장 황익삼입니다.

저희는 송촌동에 있는 대덕구공동체에서 기타에 관한 재능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공연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통기타는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6명의 공동체원들이 대덕구 공동체 사무실에서 매주 2회씩 (수요일, 일요일) 모여서 연습하고 있으며, 공연을 통하여 주민과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원들은 퇴직 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지역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어울림 통기타의 모토는 '노래와 기타로 인생을 즐겁게 살자', '봉사하며 즐겁게 살자'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Q. 공동체의 활동목표가 무엇인가요?

제2의 인생,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재능나눔으로 기타연주 실력을 늘리고, 이를 통하여 소외계층인 요양원,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타 공연을 합니다. 기타 연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통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기타 연주를 해본 적 없는 초보라도 걱정마세요. 참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맞춤형으로 알려드립니다. 열정과 기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Q. 올해 BEST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1. 대덕구 꽃씨폭탄행사 공연 (2022. 4. 2)
-장동 만남공원
2. 대덕구 공동체 한마당 축제행사 공연 (2022. 5. 21)
-송촌동 동춘당공원
3. 함께삼시다 축제행사 공연 (2022. 5. 28)
-신탄진 금강로하스산호빛공원
4. 법2동 주민총회 공연 (2022. 7. 6)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
5. 버스킹 활동
-동춘당 공원, 대청댐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초창기에는 기타 실력이 부족해서 모임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임이 지속될수록 실력이 늘고, 기타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며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말경에 금성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약 없이 미루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어르신들이 춤을 추며 좋아하십니다.

통기타 공연을 기대하고 계실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 가지질 않네요.

여건이 좋아지면 요양원 및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통기타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독보적 라온

독서와 보드게임으로
즐겁게!



Q.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덕구에 이사 온 다음,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연배가 같이 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람을 모을지 고민하다가, 당근마켓에 공동 사업을 같이 활동할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네 분이 연락을 줘서 20~60대의 덕암, 신탄진, 석봉동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서와 보드게임으로 즐겁게 활동하자'는 의미를 담아 '독보적 라온'이라는 공동체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문화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 1회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고, 처음 만남으로는 보드게임과 독서의 주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 이후 어르신들에게 보드게임을 알려드리는 활동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그림책 전문 서점이나 신탄진 서점에 가서 책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림책 읽기 봉사를 하기 위해 그림책을 같이 보며 느낀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그림책 연구가를 초대해서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에 관련된 강연을 들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공동체 모임의 날입니다. 신탄진에 있는 예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2시간 정도 함께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임은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 당근마켓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감대와 공통점이 많아서, 어색함 없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신탄진에 이사 와서 지역에 친구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체가 아무래도 주업이 아니다보니 사업을 확장하고, 회원 모집이나, 공동체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표로 모일 수 있다면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보드게임과 그림책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 모임을 넘어서 봉사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도 만들기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덕구에서 12개동 주민자치회가 설립되고 신탄진동도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사업 및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 되는 마을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신탄진동 주민자치회입니다.

Q. 공동체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민자치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0~8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43명의 자치위원이 분과 별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2년도 공동체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신탄진동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지역 자원 활용 힐링사업, 청소년 역량 강화사업, 마을 축제 사업, 재활용 쓰레기와 쓰레기 감소를 위한 사업, 복지 활동과 아나바다를 위한 사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덕 삼합 사업 등 주요 활동과 신탄진동의 마을 지도 제작 활동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구성원 중 최고의 활동가는?

이명의 자치위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치회의 막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80세가 훨씬 넘으셨지만,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앞장서는 최고의 활동가입니다.
자치활동과 사업 실행 캠페인 등, 특히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에서 많은 주민들의 모범이 되시는 멋진 분입니다.
최근 들어 마을 축제 행사에서는 하루 종일 행사장 안이 아니라 행사장 밖의 주차 안내 담당을 맡으셔서 안전한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지역의 어른으로서, 자치위원의 모범 막내로 마을의 안전과 주민을 위한 어떠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명의 자치위원님 늘 감사합니다!

Q. 공동체 운영의 매력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서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행복이기에 이것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며 가장 큰 고민은?

새롭게 신탄진동으로 이주해 온 주민들과 잘 화합하여 마을 안에서 함께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해결되어 가는 과정도 함께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낙후된 원도심의 신탄진동이 아니라 동서와 호남을 연결하는, 이웃 동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신탄진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은 신탄진동! 찾고 싶은 신탄진동! 히스토리를 품고 있는 신탄진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탄진동 마을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합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어두운 골목길에서 반갑게 만나는 가로등 불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이 속담이 아주 딱 들어맞는 신탄진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마을을 위한 활동들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동체입니다. 흠어지지 않고 멍쳐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열정적인, 최상의 마을활동가들입니다.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
놀이마당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장현선입니다.

대덕구에는 신탄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신탄진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상인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발전과 또 상인들과 친목 도모 등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말 그대로 상인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Q.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분은 몇 분 정도 있나요?

신탄진 전통시장은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5일장에서 운영하시는 상인회와는 좀 다르게 가게를 가지고 영업을하시는 상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는 한 100여 군데 정도인데,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현재로는 59명 정도 됩니다.

Q.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대덕구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지역 축제에 상인들이 직접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화합에 기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큰 잔치 석봉마당 마실, 핑크물리축제 체험부스 참여, 공주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견학,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이면도로 꽃길 조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Q. 다른 지역의 견학을 통해 얻으신 점은?

공주에 있는 산성시장의 야시장이 유명하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랫동안 전통시장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중에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관광과 연결되어 관광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야시장에 오셔서 마지막 여정을 풀어, 공주 산성시장의 야시장 역할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신탄진 전통시장에서도 야시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3일장, 5일장 외에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야시장과 같은 방향이나 다양하게 대안을 찾아보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Q. 25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신탄진 시장은?

신탄진 전통시장은 약 250여 년의 역사가 있기에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함께 호흡해 온 의미 있는 시장입니다. 중간에 변화를 겪으면서도 5일장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5일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이 별로 없고 외부 상인들이 많이 와서 매번 장을 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의 주체로서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가 먼저 앞서서 고민해 보고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활동들을 오래 해 왔습니다.

Q.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 구성원 중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송선일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월에 새롭게 회장님이 되신 송선일 회장님은 그동안의 회장님과 달리 40대가 안 되는 젊은 회장님이십니다. 본인의 업이 있으면서도 마을 일 어디에든 발 벗고 나서서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솔선수범하십니다. 그 에너지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에 열정적이신 모습이 어느 마을 활동가 보다도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젊고 열정 있으신 회장님이라면 신탄진 전통시장 상인회가 앞으로 뭐를 해도 되겠다 싶게, 신탄진 시장을 위한 여러 비전을 구상하시는 모습이 늘 인상적입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비밀 언덕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나 혼자 섬에서 고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이 혼자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 공동체끼리 만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슈도 주시고 역량 강화 등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나누는 행복, 참여로 하나되는 우리 동네

정신 건강 행복 공동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그림책아 놀자!

그림책을 활용한 지역기관 및 단체 봉사활동

내가 결정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일상 생활훈련

THE 자람

집단상담으로 친밀해지기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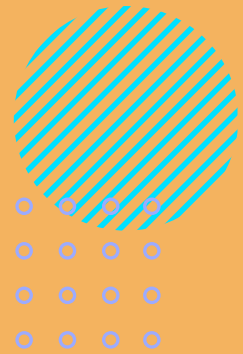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모해

중증장애인 이동권 조사

복 짓는 사람들

글꽃향 꽃그림 재능 나눔



정신 건강 행복 공동체

정신장애인들의
행복 울타리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건강 행복 공동체 전종훈입니다.
회덕동에서 행복울타리라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관저동에 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자들을 위한 직업 및 재활교육, 일자리 창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정신과 건강, 행복의 키워드를 갖고 활동을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 건강 행복'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Q.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행복울타리 회원들에게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도 취업을 해서 직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다 보니, 이력서를 낼 때 면접의 기회조차 없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나 발달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편견 때문에 취업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두려움과 격리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대한 편견해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신장애,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합니다.

2022년에는 민들레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취약계층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과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 교육을 2회 진행했습니다.

Q.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정신질환은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는 격리해야한다.’ ‘정신질환은 유전질환이다.’ ‘정신질환은 고쳐지지 않는다’ 등의 카더라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생기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하였고, 민들레의료사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교육 후 반응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되어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Q. 정신질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편견을 소개해 주세요

Q1. 정신질환자는 위험한가요?

정신 질환은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뉴스에 일어나는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치료를 중간에 멈추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 일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 받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Q2. 이상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이상하고 위험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만나면, 인기척을 내주고, 위험하지 않다는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증세를 보일시 바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Q3. 정신질환은 유전질환인가요?

유전질환이지만, 100%의 확률로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정신질환이 의심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인의 10명 중 3명~4명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걸렸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 거리는 기복도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만, 기복이 큰 사람들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기록에 남는다는 두려움에 마음이 아파도 참거나, 비싼 민간 상담 치료에 의존합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정신과에 방문해주세요. 전문의의 약처방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교육을 통하여 해소를 시키고 정신질환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도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년에는 좀 공동체 활동을 큰 규모로 자주 할 생각입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1. 정신질환자들의 일자리와 직업재활훈련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행복울타리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울타리 070-4222-2066

2. 취약계층 소득 진행

공생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충 제거를 위한 방역을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회 만원)

#전종훈 010-3276-2066

3.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바리스타 직업체험, 파티쉐 체험, 요리 치료 프로그램, 원예 치료 프로그램, 약물 증상 교육, 정신 장애인 편견 해소, 인권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종훈 010-3276-2066

그림책아 놀자

그림책 놀이 봉사단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놀이 봉사단 “그림책아 놀자” 대표 길명자입니다.

그림책아 놀자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과 정서적 치유, 소통을 만들어가는 그림책 놀이 봉사단체입니다.

21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6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영아기 어린아이로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이 읽고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책놀이를 하면서 즐거움과 심신의 치유를 제공하고자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봉사단의 회원들이 대화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대전 시내 어디든 책놀이를 원하시는 곳이면 찾아가입니다. 초청한 그룹에 어울리는 그림책을 먼저 읽어주고 그와 관련된 놀이를 진행합니다. 세대 구분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감정으로 그림책을 대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더 그림책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곳은 마을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민들레 홀씨 다오소, 대덕구 공동체 한마당, 대화 어울림 문화 장터, 독거노인 가정 등이 있고, 그 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특정 단체가 아니라도 소그룹으로 모여 초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Q. 2022년 BEST 활동은?

올해 여름에 대화동에 있는 제1경로당에 찾아가 “천하무적 영자씨”라는 그림책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림책을 읽 어준 뒤 노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린 것들과, 누구보다도 잘하는 나만의 장점을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노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것들에 관하여 “건강’, ‘치아’, ‘친구’라고 이야기 하였고, 장점은 “그림 을 잘 그려요, 음식을 기똥차게 만들어요.”라고 말씀해주 셧습니다. “노래를 잘해요.”라고 말씀해주신 어르신께서는 노랫가락을 멋지게 뽐내주셔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천하무적 영자씨가 되어 사진도 찍어보고 “천하무적 ○○ 씨”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초상화도 그려보았습니다. 어 르신들께서는 그림책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면 다 음에 또 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자녀교육을 할 때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살 것 같으면, 무인도로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더불어 서 함께 사는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문 장에 공감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작지만 우리 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대화동 중심으로 공동체원들이 모였지만, 더 나아 가서 대덕구, 대전시라도 그림책을 사랑하고, 함께 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단순한 봉사와 다르게, 그림책과 놀이 봉사는 봉사자들 이 연구도 하고 사전회의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 니 교사나 전문가들만 참여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어 봉 사단 영입이 어렵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림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단에 함께하여 좋은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면?

민들레 홀씨 다오소와 대화동 도시재생협의체를 뵙고 싶 습니다.

먼저 민들레 홀씨 다오소는 그림책 읽는 봉사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 지만,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공 동체 활동을 통해 소개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림책 활용 방법에 관하여 멘토링을 진행하고, 그림책 읽 기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동 도시 재생 협의체가 운영하는 어울림 마을 장터에 초청받아서, 부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 며 주민들에게 그림책의 매력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대전 지역 어디라도 원하신다면, 즐거운 책 놀이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후원이 있을수록 질 높 은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아 놀자” 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0-3028-5547



내가 결정한다

마음 먹은대로
다 할 수 있는 모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결정한다' 대표 박성아입니다. 현재 함께하는 대전 장애인 부모 연대 대덕구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태어난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 고민하다 결성된 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부모나 가족 또는 기관에서 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한다'에서 활동할 때만큼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Q.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에 바우처 카드와 같은 치료실 혜택이 주어지지만, 성인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해도, 동네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도 직장시설도 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네의 발달장애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왜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을 모아서 활동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가 있어도 시설에 가지 않고, 태어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주변 이웃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결정한다'를 만들었습니다.

시설에 가거나 집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변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받는다면, 함께 살아가는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참여자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해서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회차 진행 중이고, 각 회차마다 7~1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대청댐에 가서 캠핑식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공유 주방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홀로 사시는 분들과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Q. ‘내가 결정한다’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 사전 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하고,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편식도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요리 재료가 있다면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요리하는 짝꿍까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직접 결정하고,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참여자들이기에 어설픈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항상 하지 말라고 “안 돼!”라는 말만 듣고 살았던 친구들인데, ‘내가 결정한다’에 와서는 “돼!”라는 말을 들으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니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잘라 넣어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편식도 많이 줄어들고, 더 잘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제일 인기 좋았던 메뉴는 돈가스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처음에는 불 사용을 못 했던 친구들이 불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을 스스로 끓이고, 가족들의 라면도 끓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내가 태어난 마을에서 멀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태어난 마을에서 친구들, 이웃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진행 일시를 정해두었더라도 급한 일정으로 취소하시는 분이 생겨, 남은 요리 재료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재료 구입 시 전날 확인하고 당일에 재료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와 협업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하며 누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여울 단기 보호 센터와 연계를 해서 요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요리를 해서 어르신들께 포장해 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요리를 가져다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요리하면서 대화하는 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과 1 대 1로 함께 요리하면서, 활동량도 늘리고 동네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는?

희망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시도하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기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고 좋았습니다.

Q. 우리 단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들보다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뿐, “하면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모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람

성장과 성찰을
꿈꾸는 모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 자람 대표 유승래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파트너가 되어 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이 쑥쑥 자라야 삶이 더 자라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더 자람'으로 지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여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Q.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더 자람은 상담을 배우고 실천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단체로, 지역 사회에서 상담을 통해 보다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뜻을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 사업으로 공모가 있어, 마음이 같은 공동체원들을 모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더 자람 멤버로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상담사로서 찾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관에서 상담 봉사만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상담을 하며 마을도 돕고 있습니다.

더 자람을 통해 자기 탐색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수다 모임을 진행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담 활동을 제공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삶과 학교 생활에 대한 집단 상담은 진행 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양한 삶과 생활에 대한 가치관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수다 모임을 3가지 챗터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숲에서 수다 떠는 숲수다, 강에서 수다 떠는 강수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밥수다가 있습니다.

숲수다는 비가 와서 연구실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좋았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며 만난 소중한 인연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도 심어주시고, 공유 주방 활동도 도와주셨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더 자람의 목표는 자기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할하게 소통을 하고 사이 좋은 관계 형성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제가 있는 수다, 나아가 큰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을 키우는 것은 동네 어른들이기에, 동네 어른들이 화합하고 의견을 더 모으면, 마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현재 내담자는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간헐적으로 아는 분들이 연결되어 오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그것을 털어놓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인식이 심겨야 재방문이 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이 심길 수 있는 홍보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낮에는 생업이 있기에 공동체 활동이 1순위가 되지는 못하지만 놓지 않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많은 시간 수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공감을 받고 지지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더 자람의 활동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상담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은?

주제가 있는 수다모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총 6회기로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합니다. 주 1회 2시간씩 진행됩니다. 주제가 있는 수다모임은 집단상담 형식으로 공통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지지받고 공감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수다모임 이외에도 더 자람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시다면 선착순 5명까지 3회기 동안 무료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mbti의 올바른 이해, 의사소통에서의 욕구 탐색, 나의 언어생활 리뷰, 나의 무의식을 시각화하기 등의 과정이 제공됩니다.

Q. 우리 단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찰과 성장을 꿈꾸는 모임. 성찰이라는 것은 어떤 자국이 있을 때 '아' 하고 깨달음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고 깨닫는 지혜로운 어른, 현명한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오답을 찾더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지부

이웃의 손가락 개수는 몰라도,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지는 알아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Q.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곳 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지부장 박지
훈입니다.

저희는 작업치료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
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영어로 작업치료를 Occupational
Therapy 라고 하고, 줄여서 OT라고 합니다.

작업치료사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한 실천을 해보자는 뜻
과 작업치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뜻에서 OT Dream,
OT 드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전지부는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
반활동을 시작으로 만나서 작업치료사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원, 학습공동체운영,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
한 인식 향상을 위한 장애공감체험 기획 및 진행 등 다양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오티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가요?

작업치료는 재활의 한 분야로 병원 뿐 아니라 학교, 직
장, 가정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제공되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법적 제도적 미비로 지역사회현장에서의 작업치료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
터, 보건소, 발달장애클리닉 등 다양한 세팅에서 작업치
료사들이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혼자 새로운 세팅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에
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들이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
고, 현장에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기여
하고 싶습니다.

Q. 올해 중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분을 알려주세요

올해는 대덕구공동체지원사업의 지역장애인들과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첫걸음’ 사업을 통해 바퀴벌레를 없애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작업치료를 중심으로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장애가 있는 지역주민과 같이 소독하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의 가정에도 적용하고 다른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작업치료사로 근무 하다보니, 가정 방문을 자주 합니다. 노인, 장애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여, 청소가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었고, 바퀴벌레가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음식을 해 드시다가 남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작업치료사들은 퇴근하면 간지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민들레복지재단에 참여하시는 장애인들 중 운동을 함께 하는 그룹이 있어서, 함께 바퀴벌레를 없애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 소독은 무거운 약통을 들고 다녀야 하고, 더운 여름에 하기에는 몹시 힘든 일입니다. 처음엔 약통 하나로 2일에 걸쳐서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3개의 약통을 구입해서 조금씩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Q.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약통을 메고 동네에 가면 “소독 하러 왔어?”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다가옵니다. 흔히 요새말로 ‘핵인싸’가 됩니다. 입소문이 많이 난 상태라, 어르신 댁에 바퀴벌레를 없애러 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소독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벌레가 옮겨다닐 수 있기에, 내 집만 소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올해의 BEST 활동은?

대덕구공동체한마당에서 장애공감체험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시각 장애인 당사자님 배성희님께 점자를 배워보는 활동, 휠체어 이용자이신 한병룡님과 휠체어체험을 진

행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퀴벌레 소독의 필요성 및 방법, 집안관리 노하우 등 실질적인 것을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소독을 배우다가, 요즘은 도구를 따라 구입하여, 수시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당사자인 전00님께서는 소독해 주는 옆집 총각으로 불리며 소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장애의 중증도나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소독하는 가정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웃이 어디 사는지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Q. 참여자들의 소감 한마디!

-전인수: 활동하니까 운동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좋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서 하기에 서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연준: 저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식이 되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접수 역할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숙: 소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윤문현: 모두가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벌레)걱정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임애국: 지내시는데 큰 불편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부가 많이 사랑합니다.

-주수경(회계담당, 작업치료사) :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많은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인을 지원 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공부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좋은 방법은 장애인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사로서 많은 장애인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42-701-7001

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떠나는 짧은 여행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굿네이버스 동아리 ‘모해’ 회장이자 사회복지학과 2학년 황민지입니다! ‘귀퉁이에 비추는 해’라는 순수 우리말의 모해라는 이름처럼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모해는 한남대학교 중앙동아리로서 복지와 사회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학과 친구들이 매년 모집되고 있으며, 공모사업 및 공모전, 사각지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굿네이버스는 아동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모해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0-60명의 학생들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아리로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봉사에 관심 있는 한남대학교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베프투어: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대덕구 공동체지원사업으로 <베프투어 :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동권과 접근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대덕구 안을 함께 여행 다니는 것처럼 탐방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이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촌동, 비래동을 돌아다니며 베프투어를 진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 송촌동 먹자골목의 오래된 상점가의 장애인 접근성의 불편함을 함께 느껴보기도 하고, 영화관도 방문하여 비장

애인은 느끼지 못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공동체 집단이 다르면 다르게, 같으면 같게 바라보는 시선을 서로 소통하고 벽을 허물 수 있는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베프투어를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10명 안팎의 인원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20명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애인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비전문적이었고, 장애인 관련 이슈에도 관심이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투어를 다니며 많은 부분을 몸으로 부딪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도 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장애인 생활지원센터 박반석 팀장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해는 대덕구 생활지원센터와 협업해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에 관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어,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북합터미널 이동시,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을 제안해 주시고, 저상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공동체원들이 학생들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조인 또는 가족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원을 받는 활동이라 여기시던 가족들도 계셔서 깊은 대화를 나눌 의지가 없이 영혼 없는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많이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려 온 대학생들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가족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활동한다면, 다음 활동은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앞으로는 한남대학교 내에 장애인 화장실과 학교 오르막 길에 대한 문제를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2년 모니터링 결과는 소책자로 제작해서, 공동체 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 한남대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과, 장애인이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고민하는 문제에 관하여 해결하고 싶습니다.



복 짓는 사람들

꽃그림 재능 나눔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 짓는 사람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지친 주민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자 해서, 복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복 짓는 사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Q. 공동체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복 짓는 사람들'은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2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Q. 공동체 이름을 왜 '복 짓는 사람들'로 지었나요?

말 그대로 "복을 만들자!"입니다. 작년에 <범이 내려온다> 노래가 유행할 때 저희는 복을 내려주자, 복이 내려온다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복을 자꾸 만들어서 이웃에게 계속하여 복을 나눠 주자는 뜻으로 '복 짓는 사람들'로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올해 어떤 사업을 했나요?

먼저, 복 짓는 사람들은 비슷한 연령대 아이의 엄마들이 서로 만나 지금까지 좋은 이웃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공동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맞는 엄마들이 구성원이 되어 올해는 3가지 활동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꽃, 두 번째는 요리, 세 번째는 사인펜을 가지고 물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꽃꽂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꽃바구니 만들기를 시작으로 꽃말 익히기, 유리 볼에 꽃꽂이를 하거나 다육이를 키울 수 있게 해보기도 하고, 수경재배 등 단순한 꽃꽂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꽃을 어떻게 다룰

지 이야기도 해 보고, 환경을 살리면서 꽃꽂이를 해 볼 수 있게 재활용하여 다시 쓸 수 있는 바구니를 찾아 활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리활동으로 만두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 만두는 만드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기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스토리가 생기고, 요리하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로 그림 그리기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도안을 제시했고, 색연필로 테두리를 그리고, 물로써 명암을 만들어서 진하게 흐리게 하여 예쁜 그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고, 공동체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하여 즐기셔서 더 좋았습니다.

또한 종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중에 <종리동 마을 작가 전시회>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칸디아모스 작품, 염색체험으로 만든 티셔츠와 에코백, 마을 판화, 가족 필통 등 작품 체험을 한 아이들이 마을 작가가 되어 완성품을 모아 작품을 전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져 보았습니다.

Q. 앞으로 계획과 꿈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공동체끼리 서로 필요하면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짓는 사람들’도 불러 주시면 가서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꽃꽂이나 그림, 우리가 필요하신 공동체 또는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센터에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재능을 나눔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Q. 공동체를 20년 동안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는지?

끈끈한 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나면 같이 모임을 했고, 일종의 맘 카페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1년 전에 동네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의 엄마들로 만나서 서로 케어도 해 주고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가 아닌 기존의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한마음으로 모여 시작하게 된 것이 이렇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자기 개발로 인해서 시간도 없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같이 하자고 한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의 미안함 등 이런 것들로 서로를 헤아리는 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표현해 보면, 사랑의 나눔터, 연결고리, 함께 가는 곳,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교육받고,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사랑의 나눔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사는 마을

해피라이프

독거노인 고독감 해소를 위한 웰라이프 교육

동심회

세대와 다문화가 함께하는 놀이

니나노

어르신 문화체험

대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대전청춘실버

이맴리엠

대덕어린이 미래 놀이연구소

같이의 가치

공동육아 with & joy

이(e-)편한세상 대덕법동 입주자대표회의

놀이 배워서 마을에서 놀기

노리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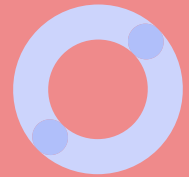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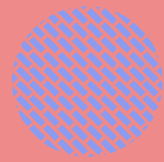
꼬마작가 프로젝트

소골 청년회

크게 clean care 소골 : 마을 청소 및 돌봄

민들레울씨다오소

대덕구 취미 걷기 및 문화활동 즐거운 노후 만들기



해피라이프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전할 수 있다.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피라이프는 어르신들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들의 고독감,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말벗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지만,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보단, 부정적인 어르신들의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해피라이프' 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르신들께 행복한 삶을 이야기 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힘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만날 같은 말만 하십니다. “아파 죽겠다.”, “밥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생활지원사들도 힘이 빠집니다. 생활지원사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듣고 어르신들께 새로운 삶의 활력을 넣어드리자, 그렇게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배움으로 풀고, 힐링하자고 결심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생활지원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누구나 죽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소망을 가진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육해 주시는 강사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교육해 주셔서 재미있게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2022년 가장 좋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미술 심리 상담 활동입니다.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는데, 10대부터 지금 나이까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본인 나이만 무지개로 표현해 놓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지개를 그리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은?

공동체 활동 사업을 알려 주신 선생님 이미양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다가, 생활지도사들끼리 모여서 힐링한다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가지면, 어려운 점도 기쁨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기만 했지,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해피라이프 공동체 활동이 저희에게 기회와 기쁨이었습니다.

Q.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해피라이프는 생활지원사가 아니더라도, 신탄진 어느 누구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경험하고, 어르신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심회

3대가 함께하는
전통 문화 놀이



Q.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동심회는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협의회 일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심회 단체명의 유래는 대화동 명동거리가 현재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동심1길이 되었고, 그 도로명에서 모임의 이름을 따와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조금 더 뜻있는 일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집수리 사업단을 꾸려서 활동했습니다. 2년간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단순히 혜택을 주고 끝내버리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전래놀이 문화마당’이라는 타이틀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3대가 함께하는 전통 놀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3째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강사를 모시고 놀이를 배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 중입니다.

참여자는 꼭 대화동에 살지 않아도, 전통 놀이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진행될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9월에 진행될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문화 공연과 먹거리부스입니다. 먹거리부스는 각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어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부스입니다.

대화동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시리아와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화동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Q. 참여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전통놀이 중 투호, 제기차기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 있었던 놀이 중심으로 축제 때 전통놀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명 '3대가 함께 하는'이라는 취지에 맞게 삼대가 함께 참여해서 전통놀이를 즐긴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원했던 취지에 맞는 그림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도, 인사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이후 서로 소통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다른 지역보다는 대화동에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이 많은 편입니다. 전통놀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우리의 문화를 교류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대화동 주민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주민들을 돕는 단체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니나노

어르신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나노' 공동체의 박현옥입니다.

'니나노' 공동체 이름은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며 노실 때 "니나노 좋다~" 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착안했습니다. 부르기도 쉽고, 어르신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단어만 들어도 즐거움이 느껴져서 '니나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Q.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저희 공동체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다 즐거운 노년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은 노인 정에도 갈 수 없는 상태로 고립되어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니나노는 어르신들의 시간들을 어떻게 즐겁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가슴을 뛰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젊은 시절의 영화와 연극을 재현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뛰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여 지금의 니나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니나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열분 모아서, 영화와 공연과 같은 문화관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에 대해서는 적은 지원금으로 많은 수를 모을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정마다 몇 명씩 요청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선정되지 않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마을에서 활동하고 문화와 사회활동을 하고

게신 분들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 분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함께 하는 대화방에서 “회원님들,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어디를 갑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하겠다는 답이 바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해도 하시고, 신기해하기도 하십니다. 너무 반응이 좋고, 기뻐하셔서 가능하다면 이 모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올해 공동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영화 보는 모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Q. 올해의 BEST 공연 관람은?

1. 클래식 연주 공연 관람: 클래식 관람을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듣는 경우는 흔한 편이 아닙니다. 운영진은 나나노의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은 클래식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도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 연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고 스피커를 통해 홀에 음악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왈츠 풍의 음악이었지만, 음악을 듣는 순간 어르신들의 몸이 음악에 맞춰, 감정 표현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내 생애 처음 경험해 보는 연주라며 찬사와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2. 대전시립무용단 공연을 관람: 어르신들께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 앞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나노’ 공동체 운영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재정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넉넉하다면 매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체험을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공동체 활동이 끝나면, 내년에는 공동체 운영에 있어 가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나나노를 계속 운영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재정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코로나 감염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회원 전체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산책이나 걷기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의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 드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고립으로 인해 우울해진 시간들을 즐거움으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Q.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노년은 행복이다.



대덕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노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춘실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이영숙입니다. 150만 대전 시민들이 깊은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밝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덕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밝음을 찾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미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Q.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후, 단면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기르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와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어 우울증, 고독감,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노인들에게 마음의 활력과 신체적 건강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체조, 건강 교육, 문화 활동 참여(음악, 영화 상영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전에 없던 교류를 드리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올해는 노인 관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독거노인들을 만나게 되어 고충과 소외감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어 외로움, 상실감, 우울감이 있는 노인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Q. 청춘 실버,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50-60대 10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비래동에 거주 중인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모시고 함께 산책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간식을 제공해 드리고 건강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 혹은 기관에 방문하여 건강박수, 건강체조, 마인드강연, 레크레이션, 만들기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BEST 활동가를 소개해주세요

실버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하고 있는 활동가 이화선을 소개합니다.

청춘실버와 함께 컴퓨터, 마인드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와 같은 다양한 재능으로 봉사하면서, 삶의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Q.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미소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더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원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이 공동체 운영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봉사나 도움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전에 다시 재도전해서 올해보다 폭넓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보다 폭 넓게 도움과 봉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나도 노년이 올텐데, 앞으로 나의 노년도 공동체와 센터로 인해 즐겁고 행복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멤리멤

동네 엄마들의
친구 만들기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 이멤리멤 대표 임영임입니다.
지역 내 이웃들과 육아정보 공유 및 이웃간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신탄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져서 사람을 만나볼 생각으로 신탄진 맘스홀릭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볼 마음으로 83년생 동갑을 모집해, 83년생 13명의 친구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가족처럼 소통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2014년 처음 모임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공동체원들의 자녀가 모두 영유아기여서, 육아정보 공유와 친목모임을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멤버들이 계속 기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멤버리멤버'라는 의미를 담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개인 사업으로 블록방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아이들과 대화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블록방에 놀러오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해 물으면 "재미없어요."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생들끼리 교류나 소통이 부족해졌기에,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여유로워진 엄마들이 '마을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뭉치게 되었고, 목상동, 석봉동 부근에서 소소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모이자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이웃들과 “같이 삽시다”라는 마켓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없이 개인들이 모여 마켓을 주최한다는 것에 장소, 비용, 기획, 홍보, 모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 둘 관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도움을 주셔서 현재까지 2회 마켓을 성공리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샐러, 음향, 재능기부-노래 등으로 자발적으로 서로서로 도움 주셨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만 모이면 함께 할 수 있구나는 것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들은 9월 이현동 마을 축제, 10월 호박 축제, 10월 22일에는 신탄진 맘스홀릭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음 맞는 소중한 인연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혜령 신탄진맘스홀릭 부매니저님, 다영이 엄마, 래원이 엄마, 연우 엄마, 태희 엄마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이 마음 하나로 모아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가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듯,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주기 위해, ‘아동전문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공동체의 최종 목표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 조율이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직장인이기에 회의도, 사업진행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이 영유아나 청소년이냐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이사 등의 문제로 사라졌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상부상조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다 보면 이웃 간 반찬과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이맴리멤은 옛날 공동체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을 한 사람이 구매해 오거나, 한 사람이 건강청을 담아 모두에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서로가 조건 없이 주고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맴리멤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놀이학교에 참여할 어린이와 엄마, 아빠를 모집합니다~!

1) 옛놀이 - 비석치기와 연날리기

2) 미래의 놀이 - 미래의 놀이 연구와 마인드맵 그리기

#임영임 010-7420-6866



같이의 가치

함께 가치를 이루어 가는
육아 공동체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같이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육아 공동체입니다.

주말에 홀로 육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함께 모여 아이들과 오감놀이를 하고 육아정보 공유와 육아책 셰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는 함께 가치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혼자하면 힘든 육아를 함께하며 그안에 참된 육아의 가치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Q. 어떻게 공동육아를 시작하셨나요?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엄마들과 함께 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공동체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분께서, 엄마들끼리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지원받아 더 아이들에게 풍성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공동체 활동을 추천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의미 있는 공동육아를 하기 바랍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 1) 놀작놀작 - 여러 가지 오감활동들을 한달에 1번 이상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북작북작 - 육아책을 토대로 육아 정보 셰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알리고 싶은 올해의 활동은?

1) 여름 물놀이 캠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캠프를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름에 풀장을 직접 설치하여 물놀이 및 공동체 활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최고였습니다!

2) 김밥 만들기

집에서 혼자 하려면 힘든, 요리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포장해가서 가족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 활동이 즐겁긴 하지만, 엄마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료를 준비해 함께 요리하니, 엄마들도 아이들도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워킹맘이라서, 아이가 잘 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아이와 주말만큼은 놀아주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같은 입장에 놓인 엄마들이 함께 하다 보니, 육아가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든 육아도 함께 하니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좋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공동육아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e편한세상 대덕법동 입주자대표회의

놀이를 통한 공동육아로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편한세상 대덕법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용주입니다. ‘e편한세상 대덕법동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아파트로서 입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고 그 중에서 다시 입주민 선출을 통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합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별대표자들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체로 등록됩니다.

2020년 09월 18일 이후 입주를 시작한 150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e편한세상 대덕법동’의 경우 아파트의 중요 현황 결정과 입주민의 화합·친목·소통, 입주민의 교류 확대로 이웃 간 분쟁 감소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 외에도 학부모와 아이들 삶의 질 향상과 교육,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놀이를 배우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세 자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버거운 일이기에, 공동육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공동육아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고 마음먹었고, 같은 취지로 동대표님들,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놀이를 배우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모집 방법은 배너를 통해 홍보하고, 선착순 전화를 받아 모집을 했습니다. 매 회차별 15~2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이게 되었고, 회차마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만나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진아트, 요리쿠킹, 보드게임, 음악줄넘기, 샌드아트, 체험학습과 같은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재미있었지만, ‘음악줄넘기’ 수업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음악에 맞춰 몸으로 노

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체육강사님이 재미있게 진행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은 청주에 위치한 “더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더플레이그라운드는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다녀왔던 곳인데요. 폐교로 만들어진 학교로 동물 먹이 주기,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서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끼리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놀이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육아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끈끈해져 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통이 이루어져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단지 내 학부모와 아이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공동체 활동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배출되리라 생각합니다.

Q. 공동체 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부모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나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중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공간도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리다락

굿즈로 만들며,
경제 관념을 익혀요!



Q.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디자인과 일러스트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굿즈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굿즈는 아이들도 충분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리다락은 초1부터 40세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명, 대덕구 지역 청소년 10명, 성인 8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본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제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대전시와 대덕구를 주제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굿즈 제작과 경제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5가지 정도의 상품(아크릴 키링, 떡메모지, 스티커 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9월 15일부터 전시와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시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것이고, 굿즈 개발에 관심있는 청소년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덕구에서 시작한 활동이지만, 영동 등 다른 지역까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동미래고등학교 동아리와 매칭이 되어서, 굿즈에 관심있는 고등학생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공동체를 통해 느끼는 변화가 있나요?

굿즈 제작 활동을 함께 하면서, 굿즈 제작업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디자인을 하고 어른들이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 제작까지 진행할 정도로 실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과 내가 만든 굿즈가 판매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

는 것을 보고 부딪혔습니다.

지역 카페에서 전시회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굿즈를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서 감상하고 구매해 주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Q. 공동체 운영을 통해 느끼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도 아이들은 계속 남는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해 보니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대표를 해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굿즈 제작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 줘서 지역에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진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Q. 나에게 공동체지원센터란?

공동체지원센터가 없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교육이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는 조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서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고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운영을 하다보면 지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동체지원센터에 와서 밝은 기운과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Q. 우리 공동체를 자랑해 주세요

공동체 활동을 생각하면 보통 취미활동으로 끝나는데, 우리 공동체는 돈까지도 함께 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벌 수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돈을 벌어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피부에 와닿는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관심이 생기고 취향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소골 청년회

마을 청소 및 돌봄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골 청년회 대표 강경규입니다.

동네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마을들이 모였다 하여 '소골'이라고 하였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청년이기에 청년회라는 이름을 붙여 '소골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소골 청년회가 활동하게 되었나요?

저희 소골마을은 대청댐이 수몰되면서 이주해 20여 가구가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동네가 구성된 지 40여 년 정도가 되었고, 거주하시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80세 정도 되고, 마을이 오래되어 조금 침침하고 해서 어르신들의 자녀로 구성된 회원 4명이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 일을 돕는 다던가 전구를 갈거나 보일러 고장에 대한 간단한 수리 등을 하며 마을을 화사하게 해 보자 하여 작년 연말 정도에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소골마을은 20여 가구가 모였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자녀가 몇 인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어르신부터 어르신들의 자녀까지 함께 이어져 서로를 알고 있기에 더욱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Q. 주로 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어르신들이 조금씩 농사를 짓고 계셔서 밭갈이라던가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간단하게 수리를 도와드리기, 집 중간중간에 관리 안 된 땅의 잡초 뽑아드리기, 마늘밭 풀 뽑기, 꽃밭 조성하기, 장마나 태풍 시 마을 앞 도로 정비하기, 버스 정류장 주변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정리 같은 경우, 버스 정류장 주변에 사람들

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지저분하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원금을 통해 약 3평 정도 공간에 꽃 화단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과 같이 꽃도 심고 물을 주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었던데요?

지난 어버이날에 어르신들 모시고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년회에서 키우고 있는 청계를 나눠 드렸습니다. 소골동네는 아직도 정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골 청년회’는 동네 어르신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려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려는 식사 대접, 간식 나눔, 청계 나눔 외에 봉사도 많이 하려 합니다.

Q. 집 수리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저희가 하는 수리는 크게 하는 수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안된다거나 전구가 나갔을 때 소모품을 구입해다가 교체 해 드리고,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직접 도와드리고, 저희 선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도움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타지에 계신 자녀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가끔 자녀분들이 어버이날 같을 때 과일 같은 음식을 어르신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보내 주십니다. 일부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날에 삶아 드시라고 닭을 나눠 주시기도 하고, 감사해 하십니다.

소골마을은 위에 세대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기에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소한 일도 같이 나누고 어려운 점은 같이 이야기 나누며 동네도 지키고 어르신들도 지킬 수 있어 좋습니다.

Q. 소골 청년회 회원 중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면?

제일 막내인 민병일 회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장비면 장비, 농기계도 잘 다루고 수리도 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청년회 회원 중 민병일 회원님을 제일 찾습니다. 또 민병일 회원이 잘하기도 하지만 씩씩하고 재능이 많다 보니 소골 청년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며 힘든 점은?

어르신들이 80세가 넘으시다 보니 변화를 상당히 좀 싫어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고집을 피우시면 앞에서는 “알겠습니다”하고 뒤에서도 변화를 조금씩 하려 노력을 합니다.

Q. ‘소골 청년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현재는 퇴직은 하였지만 직장 생활을 하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서인지 지시형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됩니다.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형이 자주 시키니까 쉬는 날에도 모여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키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 미안했다고 동생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공동체 지원에 대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원을 하며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지원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들레흙씨다오소

동화읽기로 소통하기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흙씨다오소 이내희입니다.

우리 '민들레흙씨다오소'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다 오세요~를 의미합니다.

모임 대표이신 주웅식 회장님이 활동을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모으셔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극을 통해 모여진 '민들레흙씨다오소'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챙기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연극과 함께 어른분들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2022년도 공동체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전에는 연극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은 못하니까 안에서 어르신들께 동화 구연을 해 드리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구연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끼시고, 듣는 분들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화 읽기 모임 연습을 많이 하며 노력하였습니다.

Q.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 드리게 되셨나요?

대부분 동화책은 어린이들만 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린이처럼 동화되면서,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음속에 간직한 동화 한 권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생각에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 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읽어 주고 싶다고도 하고, 서로 읽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림책이 매개가 되어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소통의 기회가 되어 좋습니다.

Q. 어떤 친구한테 동화를 읽어 드리고 싶으신가요?

힘들고 마음이 울적한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의 마음도 잘 알고 이해심도 많이 생길 때라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Q. 연습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장소입니다. 고맙게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대관을 허락하셔서 장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Q. 배우고 연습하여 책을 읽으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릅니다. 배워서 읽게 되면 생동감이 있고, 읽을 때 노년에도 젊음을 더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로 오셔서 함께 배움과 연습을 하실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Q. 자랑하고 싶은 활동가를 소개한다면?

주웅식 회장님입니다. 인기도 많으시고 책도 잘 읽으시고 노래도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백순남님, 오세순님 등 활동가 모든 분들 소개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는?

올해 2022년도에 동화 구연을 전적으로 했는데, 여럿이 모인 자리가 있게 되면 책을 읽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기회로 동화 구연을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Q. 우리에게 공동체 지원센터란?

우리 '민들레흙씨다오소'한테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단비 같습니다.



#5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새여울 단기보호센터

커피박 리사이클링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주민이 만드는 미호넷제로 장터

마을청년이슈연구소

기후위기 대응 주민실천단

비래동 새마을문고

환경 관련 수업, 견학, 발전하는 환경 거점 도서관

(사)대전희망유스나래

몸과 마음, 환경이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야우킴

법1동 환경지킴이



새여울 단기 보호센터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보통의 삶’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여울 단기보호센터 김현미 센터장입니다. 저는 덕암동에 위치해있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새여울 단기보호센터는 신탄진 옛지명을 따서 만들었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하루 이틀 단기 거주도 가능합니다, 재계약하여 몇 년씩 함께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은 7명, 성인 정원 11명 규모의 시설이며 큰 시설과 다르게 특화된 개별 지원이 가능한 센터입니다. 올해 처음 ‘커피박 리사이클링’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커피박 리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 기관에 계신 분들이 성인 발달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 1회 길거리나, 공원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지냈습니다. 배달강좌로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고, 만든 비누를 어르신들께 나눠 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하며 쓰레기를 주울까?’ 환경을 지키는 행동에 관하여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박 재활용’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커피박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문외한 사회복지사들이지만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인들과 커피박화분과 커피박 주방비누를 만들어, 거주인들이 지역주민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알리고 함께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Q. 커피박 리사이클링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나요?

커피박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한 커피박은 센터 근처에 있는 카페 ‘달팽이 카페’, ‘커피 하루’ 2곳에서 1주일에 1~2 번씩 받아옵니다. 위 두 카페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수막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수거하여, 지역주민들과 주방비누와 화분을 함께 만듭니다. 커피박 재활용 방법을 알리고 쓰레기 자원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 커피박 리사이클링을 시작할 때에는 유튜브만 따라 하면, 쉽게 커피박 화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경기도 화성에 가서 기술을 배웠지만, 장비 비용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찾은 대안은 세종에 있는 ‘커피큐브’였습니다.

커피박을 열심히 지역 카페에서 수거해서 말린 뒤, 커피박 클레이로 바꾸어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문제가 있어, 건조기를 구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활동자들이 좋아하기에, 만족하고 뿌듯함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2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2022 상반기 대덕구공동체 한마당 행사 시 저희 부스(커피박 주방비누 체험)에 체험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쉬지 않고, 계속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분들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호르몬의 심각성도 알고 주방비누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해봄으로써 커피박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한마당에서 저희 부스를 눈여겨 보셨는지 9/3 동춘동공원에서 하는 “리딩리딩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커피찌꺼기로 만든 커피박 자석을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다양한 쓰레기 재활용을 알릴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커피박 수거를 도와주시는 지역 카페,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지역 어린이집, 로터리클럽, 지역 경로당이 있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이자 지역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자원화를 알리고 동참하며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주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Q. 알리고 싶은 우리 공동체만의 이벤트는?

저희 공동체에 방문하시면, 직접 커피박 화분과 커피주방비누 만든 것을 예쁘게 포장해 드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커피박 오너먼트 및 주물력 비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천연비누, 주방비누, 친환경수세미는 개인적으로 뜨고 있어서 방문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합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통의 삶’입니다. 저희 공동체원들은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벚꽃축제도 평일에 가면 쉽고 편하게 가겠지만 주말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넷제로(net-zero)



Q. 에너지전환해유? 무슨 뜻인가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유’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도 사투리 “○○해유~~”라는 청유형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태양(해)”입니다. ‘해’가 주요한 ‘油: 기름 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공동체의 목적을 말해주세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실천이 중요해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전환 활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구온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단체입니다. 시민활동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을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물품판매와 에너지·기후위기 교육&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넷제로 장터 및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여러 가지 활동 중 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체험이 있나요?

로컬푸드 체험을 추천합니다. 텃밭에서 농산물을 채취해서 요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탄소발자국이

0이 됩니다. 체험 활동을 준비하는 텃밭은 미호동 통장님의 개인 텃밭이었는데, 공동체 활동을 위해 선뜻 내 주셨습니다. 주말에 청년들과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와서 농산물을 키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호동 주민 중 하나가 텃밭 관리자로 채용되어서 텃밭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소중한 인연이나 경험이 있나요?

미호동 주민들입니다. 저희는 미호동 주민들과 함께 넷제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넷제로 장터’는 쓰레기 없는 장터, 지구를 살리는 장터 즉, 미호동 주민들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플리마켓이자 플라스틱, 일회용품, 과대포장 없이 탄소배출을 줄인 로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미호동 마을주민들과 함께 기획 및 운영을 하다보니 더 끈끈해지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전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에서는 제로웨이스트 꾸러미 납품과 에너지전환 및 기후위기 교육&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일 교육&체험 시

- 공정무역 커피&미호동 마을주민이 만든 효소 무료 제공(그 외 음료 30% 할인)
- 공판장 제로웨이스트 물품 5% 할인

* 교육&체험 프로그램

- 강의+재생에너지(솔라오븐) 체험
- 강의+양말목 체험
- 강의+천연비누체험(삼푸바 or 고체치약)
- 강의+로컬푸드 체험

Q. 에너지 전환해유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넷제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넷제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에너지, 탄소중립 활동을 하는 곳은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청년 이슈연구소

청년과 마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청년이슈연구소의 김기영입니다.
저희는 신탄진에서 청년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청년이슈연구소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청년 정책이
나 마을의 청년 이슈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을과 지역, 그리고 청년에 관해 연구해서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은 지역 안의 청
년들이 떠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약하
나마 저희가 활동함으로 인해 지역에 재미있는 이슈가 생
겨서 지역에 남는 청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Q.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역과 청년의 소통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
을 위해 만든 정책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 때
도 많고,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역
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청년이슈연구소는 “우리 지역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
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주민들은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연구하고 지역과 어른, 청년이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지역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다양한 영역에 관심
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후위기와 환경문
제에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
고, 기후위기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영역은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네
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환경교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Q. 올해의 베스트 활동은 무엇인가요?

대덕 에코넷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다양한 주민들이 신탄진까지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는 수업에 참여하며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후위기 프로그램 운영이 장마기간이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습한데, 라탄공예를 진행해서 분무기로 물을 많이 뿌리니 더 습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재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또 내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제보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마을청년이슈연구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과 지역이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역에 청년들이 필요한 곳을 만들고, 주민들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반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과 징검다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 역할을 마을청년이슈연구소가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어른들의 경험을 합쳐서 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을 하다 보니 기간에 비해 할 일이 많아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누굴 찾아가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부터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도 모집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도와주셨고,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마을청년이슈연구소는 신탄진의 민간공유공간 '작당모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오셔서 시원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방문은 무료입니다~! 대덕구 공동체에서 공간 대여 시 1회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공동 기획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알려주세요! 달려갑니다~~



비래동 새마을문고

사람 냄새나는 환경 거점
도서관에 놀러오세요 :)



Q. 비래동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래동 새마을문고 회장 김다영입니다.
대전에는 10개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문고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는데요, 비래동 새마을문고에도 특색이 있었으면 해서 고민하던 중, '환경 거점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공동체 목표는 대전시민들의 마음 속에 '환경책' 하면 '비래동 새마을문고'가 떠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Q. 환경 거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래동 새마을문고는 비래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2주 동안 3권씩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아침 10시~저녁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2~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Q. 문고 운영 외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 거점 도서관 운영 외에도 공동체원들과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책 읽기, 오디오북 만들기,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며, 환경 동극 (인형극)을 기획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플라스틱을 모아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줍깅 데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숲속문고 활동을 통해 환경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삼푸바 같은 업사이클링 물품들을 만드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며 만난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며 만난 모두가 소중한하지만, 공동체원인 김연수님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덕구에서 살

다가 서구로 이사를 가서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연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공입니다. 환경 동극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고스톱도 잘 치고, 글도 글씨도 잘 쓰는 능력자입니다. 요즘 할머니가 되다 보니, 손주 보는데 바빠져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손주를 이길만큼 재미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김연수님에게 한마디 전합니다. “주인공, 돌아와! 손주 말고 우리랑 놀자~!”

Q.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하고 싶나요?

공동체 운영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동사무소 문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문고 운영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재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모임이 너무 재미있다고 보니 김연수님처럼 타지로 이사를 갔음에도, 멀리서도 모임에 참여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Q. 우리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앗간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우리 공동체도 비래동 문고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합니다. 19명의 회원들이 끈끈한 사이다 보니, ‘문고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혼자라서 심심하다면 함께 놀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문고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방앗간, 비래동 새마을 문고입니다.



대전희망 유스나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노르딕 워킹



Q.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대전희망유스나래 대표 우희정입니다. 저는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자립, 자치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대덕구 석봉동에 청소년 자치 공간을 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생을 청소년과 함께, 현역처럼 활동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대전희망유스나래는 청소년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활동, 탐험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대전희망유스나래'와 함께 꿈을 꾸고 비상하라는 의미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전희망유스나래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마을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존재합니다. 꿈, 마을이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입니다. 청소년은 인간의 생애주기 중 중간에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아동과 성인, 노인을 잇고 마을과 청소년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대전희망유스나래는 올해 4월 29일 개소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업은 물론 마을공동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2022년 대덕구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몸과 마음, 환경이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줍깅'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 환경, 건강까지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올해의 베스트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1) 청소년 포상제

만 7세~24세의 청소년이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설계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2) 청소년 아웃도어 교육 및 체험

아웃도어 교육은 자연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경험교육이며 학교 밖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정서적, 신체적 활동이 어우러지는 통합적 교육 활동입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청소년이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에서 대면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4) 청소년 기후환경 교육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양질의 기후환경교육을 제공하여 환경감수성과 기후 소양을 함양하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전희망유스나라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마을이 ‘청소년수련활동의 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고 시민이며,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지역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마을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Q.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모든 신생 단체가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신생 단체가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신생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단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Q.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대전희망유스나라는 50평 규모에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강의실 2개소, 청소년쉼터 1개소, 카페 1개소, 사무소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2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고, 카페는 마을주민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임시나 진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이 독서를 하거나 창의적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언제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실상 모든 공간이 활동공간이며, 청소년은 회의, 학습, 동아리 활동을 위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우킴

야! 우리는 법1동
환경지킴이



Q. 공동체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야우킴입니다. 야우킴은 “야! 우리는 법1동 환경지킴이”의 줄임말입니다. 법1동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재순환을 하기 위해서, 10명의 주민들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40대에서 70대 사이의 지역 주민이 활동하고 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마을의 현안에 대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친환경 비누와 친환경 세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세미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Q. 공동체 운영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혼자라면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함께 하기에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Q.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하는 일들도 있고, 지역의 활동가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업이나 먼저 하고 있던 활동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기획해서, 공동체 사업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Q. 우리 공동체에 대해 자랑하자면?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